

미국 “중, 2035년 핵탄두 1,500개 보유”

국방부, 중 군사력보고서 발간
“유사시 북 WMD 확보 나설 수도”
 국방비 2천억달러, 한국의 4.4배
 대만 점령 상륙작전 감행할 수도
 육군 97만여명·항공기 2,800대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2035년에는 현재의 3배가 넘는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매년의 회에 보고하기 위해 발간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핵전력의 현대화, 다변화와 확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과거 수준

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보유 핵탄두가 400개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 속도를 유지하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빠른 속도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평가했다.

미국은 2020년 9월 기준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중국이 동평(DF)-31과 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적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했다면서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 중국이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미

사일 대부분이 품질면에서 다른 국제 최상위급 생산자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러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거나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는 물론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군이 2027년까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면 대만과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에 더 강력한 군사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2021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천90억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고 미 국방부는 추정했다.

이는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대만(154억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20년 이상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UAS(무인항공시스템), 잠수함, 함정, 지대공미사일, 전투기 등 거의 모든 부분의 재래식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에 판매하고 있다며 전 세계 5위 방산수출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과 관련, 육군 현역 병력이 97만5천명인 것을 비롯해 해군 함정과 잠수함 340척, 공군 항공기 2,800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 '중국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

국방예산(2021년)
 2,090억 달러(전년 대비 ↑6.8%), 중국 GDP의 1.3%(추정)

2,090억 달러
 주년국 국방비: 중국 550, 일본 480, 한국 154, 대만 13.6배

주요 병력
 육군 현역 97.5만 명, 해군 함정-잠수함 340척, 공군 항공기 2,800대 등 보유

보유 핵탄두 수
 현재 400개(추정) → 2035년 1,500개 전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격납고
 300개 이상 건설

'경보 즉시 발사' 태세 전환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반격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 실시, 비상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지역 담당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지시 가능

주요 작전: 난민 유입 통제 국경 장악,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자료: 미국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연합뉴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 100명이 중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한 남성이 대학 창립자인 존 하버드의 동상에 마스크를 씌우며 눈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 시위자 대대적 검거 나서

“필사적 채팅 기록 삭제 중”

중국 당국이 최근 우루무치 화재 사고로 촉발된 시위를 차단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현장 채증 사진·영상과 텔레그램 등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SNS),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다.

지난달 25~27일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난징·정주 등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시위에서 시위대가 텔레그램과 SNS로 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선 것이다.

텔레그램은 중국에서 차단돼 있으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VPN 사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폰 등을 견제받아 시위 장소, 배치된 경찰 위치 등을 논의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은 경찰이 휴대폰 추적을 통해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학교 측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왜 시위 장소에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중국 주요 도시에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을뿐더러 경찰이 영장 청구 없이도 개인의 휴대폰과 SNS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익명의 베이징 시위 참가자는 “필사적으로 채팅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하와이 활화산, 60m 용암분수 뿜어

“인명 피해 위험은 없어”

38년 만에 폭발한 세계 최대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 로아에서 최대 60m가량의 용암 분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AP, AFP통신 등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분화한 마우나 로아의 분화구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개의 틈이 벌어져 시벨린 용암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 등을 내뿜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용암 분수의 최대 높이는 “100~200피트(약 30~60m)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암은 산 아래를 향해 흐르다가 현재는 북측 기슭 주도인 ‘새들로드’로부터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용암 암석과 화산재, 가스, 화산유리 입자 등이 바람에 날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와이 당국도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지는 않고 산 정상 지역과 몇몇 도로만 봉쇄했다.

데이비드 이계 주지사는 “용암이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필요시 기민한 대응과 접근 제한 등을 위해 긴급사태는 선언했다”고 밝혔다.

AP는 29일에도 공기 중에서 화산 가스와 유황 냄새가 진하게 나지만 용암류를 좀 더 가까이 보려는 구경꾼들이 새들로드 건너편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대변인은 “야간이나 일출 전에는 장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 검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 같은 소식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곧바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고위 국방 관리는 이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 강화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패트리엇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모든 전

력이 테이블 위에 있다. 패트리엇은 검토되고 있는 대공방어 전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견뎌내도록 모든(지원) 가능한 전력을 살피고 있으며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유용한 전력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의 뒤 기자회견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